

경상수지 대책으로서 FTA*

- 대내적으로 FTA의 가장 중요한 플러스 효과는 ‘FTA→시장개방·구조개혁→경쟁압력→생산성 강화’로서 동태적인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
- 대외적으로 신흥국과의 FTA 체결로 인프라수출 기회가 확대되는데, 기계 등 하드웨어 수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수출도 확대되고, 나아가 인프라수출을 통하여 신흥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됨으로써 일본의 사업기회가 확충될 수 있는 효과 등이 주목됨
- FTA정책과 관련, FTA커버율이 높은 무역대국과의 FTA체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FTA정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음

* 이 자료는 우라다 슈지로우(浦田秀次郎) 와세다대학 교수가 2013년 2월 26일자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: 거대경제권과의 FTA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□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 변화

① 무역 수지

-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용은 크게 변화
 - 무역수지는 2010년까지 흑자를 유지, 2004년까지는 경상수지의 중에 4개 항목(무역수지, 서비스 수지, 소득수지, 이전수지 등) 가운데 무역수지가 최대 흑자를 시현

- 그러나 2007년 이후 크게 감소, 2011년과 2012년은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, 적자폭이 1조 6,000억엔에서 5조 8,000억엔으로 확대
-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대유럽 수출 감소, 日中관계 악화로 인한 對중국 수출 감소, 원전 중단에 따른 LNG 및 원유 수입 증가 등이 원인임
- 무역수지적자 확대는 단기적이고 특수한 요인만이 아니고, 엔고에 따른 직접투자 및 해외생산의 확대나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음
-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은 일본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한편, 외국제품의 對日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일본의 수입을 증대시킴
- 엔저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달러로 거래되는 석유 등의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
-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엔저에 의해 수출이 확대되는 한편, 수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무역적자는 축소될 것임
-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

② 서비스 수지

- 서비스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 왔으며, 2012년에는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
- 수송서비스와 여행부문이 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, 특허 사용료는 활발한 기술수출로 흑자를 유지

□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시장개방과 규제개혁

-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
 -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임
 -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이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짐

□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위한 FTA

-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특정 국가들과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FTA가 효과적임
 - 무역자유화(FTA)는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, 2001년에 시작된 다각적 통상교섭이 암초에 부딪쳐 재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선책임
- FTA는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을 확대시켜 줌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
 - 현재까지 일본은 싱가포르, 멕시코, 인도 등 12개국과 2국간 FTA,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(ASEAN)과의 지역FTA를 발효
 - 일본의 FTA 건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지 않으나, 일본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FTA상대국과의 무역액 비율(FTA커버율)은 18.6%(2012년 7월말 시점)로 미국(38.8%), ASEAN(60.0%), 한국(34%)보다도 훨씬 낮음

〈주요국의 FTA커버율〉

칠레	91.2%
멕시코	81.4%
페루	75.6%
EU(전체 무역)	73.8%
(역외 무역)	26.4%
캐나다	67.1%
싱가포르	62.7%
ASEAN	60.0%
뉴질랜드	47.0%
미국	38.8%
한국	34.0%
일본	18.6%
인도	17.9%
중국	16.2%

자료 : JETRO

□ 무역대국과의 FTA는 여러 측면에서 이익

- 미국, 중국, EU, 한국 등 경제규모가 큰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이 일본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
- 일본은 TPP뿐만 아니라, 교섭이 개시된 일EU FTA, 한중일 FTA,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협정(RCEP) 등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
-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, 일본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임

□ 개도국과의 FTA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의 흑자로 연결

- 동아시아의 개도국들은 금융이나 유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어, 일본의 수출기회가 제한적임
- FTA는 상대국의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여행과 수송서비스 분야에서도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- 구체적으로는 의료관광, 에코관광, 국제공항 서비스 등임

- 소득수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흑자폭이 확대
 - 2011년, 2012년에는 다른 항목들이 적자로 반전되었으나,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흑자의 대부분은 일본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의한 직접투자수익임
 - 향후 일본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며, 이에 따라 소득수지 흑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
- 소득수지 흑자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정부개발원조 등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정비와 전문 인력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 - 이들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, 개도국들과의 FTA, 투자협정, 조세조약을 체결,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일본으로 환류시키기 쉬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
- 최근 개도국들의 인프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에서 기계 등 인프라 수출은 물론,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수출을 확대시킴
 - 인프라가 정비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면, 그만큼 수익도 개선되고 소득수지흑자 확대에도 이어짐
 - 인프라 정비나 수출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등 여러 형태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임

□ FTA를 통한 對日직접투자 확대도 중요

- 對日직접투자는 자본수지로 계상되지만,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나 공동화 대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외국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이전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, 생산과 고용의 확대로 공동화를 억제하는데 기여하지만,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임
- 對日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송 및 서비스분야와 같이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를 개방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및 유능한 글로벌 전문 인력육성 등을 통해 일본경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임

□ 시사점

- 국제경제이론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되며 각각의 효과도 세분할 수 있음
- FTA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플러스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, 우라타 교수는 FTA효과를 경상수지 대책으로 연결시키고 있음
 - 특히, 경상수지를 무역수지, 서비스수지, 소득수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지에 대한 FTA의 효과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음
- 대내적으로 FTA의 효과는 ‘FTA→ 시장개방·구조개혁→ 경쟁유발 촉진→ 생산성 상승’ 으로서 동태적인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

- 대외적으로는 신흥국과 FTA 체결로 인프라수출 기회가 확대되어 기계 등 하드웨어 수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수출도 확대되고, 나아가 인프라수출을 통하여 신흥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일본의 사업기회가 확충될 수 있는 효과 등이 주목됨
- FTA커버율이 높은 무역대국들과의 FTA체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, 우리나라의 FTA정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2.26)